

제1차 청계천시민위원회 회의록

『11시 10분 개회』

000 : 지금부터 청계천시민위원회 발족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000 : 다음은 000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000 : 우선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도 청계천에 고가를 드러내고 복개구조물들을 드러낼 때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공사의 과정에서 역사적 복원 또 생태성의 고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외국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여행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외국의 이런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건축되거나 또 복원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중요한 역사적 유산들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성급하게 하는 그런 병폐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천이 정말 제대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복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야말로 그렇게 서두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시행착오 없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전문성과 열성에 답할 만큼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교통비나 드리나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천만 서울시민과 또 미래 서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보람밖에 저희들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 대신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을 제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0 : 다음은 우리 시민위원회가 공동위원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이신 000님하고 또 위원장님을 한 분 더 추천해서 후보를 선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000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000 : 안녕하십니까? 000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정에 따라서 선출직 위원장님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한 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00 : 000님을 추천합니다.

000 : 또 다른 위원님.

000 : 000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000 :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000님과 000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저희가 위원장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표결의 방법이 있고, 논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 동일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명망과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어서 어느 분이 위원장님이 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들을 모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회경험이나 리더십 또는 연장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토론 시간을 갖고 의견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00님께서 정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여러 가지로 명망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왔기 때문에 이 시민위원회를 이끌어다가서 결국에 청계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

셨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리드해나가실 수 있는 책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000 :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000님.

000 : 제가 물의를 빚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저도 000 선생님 인권위에 계실 때도 평소에 존경하는 분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경선이 좀더 재밌지 않을까. 000 선생님 추천한 이유는 워낙 청계천 문제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어느 분이 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경선의 재미를 보태고자, 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0 : 추천해 주신 분들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말하자면 객석에 앉아 계셨던 분들 의견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님 골똥히 뭘 생각하고 계신데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롭습니다. 000님이 위원장으로 되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000 : 이거 뭐 줄 세우기 하시는 건 아니죠?

글쎄 저는 역사분야로 여기 위촉이 됐고요. 사실 사람이 발을 디디고 하는 것들을 따지다 보면 자연에 대해서 무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라는 게 자연을 훼손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서요. 오히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000님이 맡아주시는 게 저로서는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000 : 고맙습니다. 000님은 어떠십니까? 남자 분들만 얘기 들으니까 미안해서요.

000 : 저는 어느 분이 되셔도 잘 이끌어주실 것 같아요.

000 :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자면 이렇게 양손을 같이 드시겠어요?

000 : 예.

000 : 000님.

000 : 000님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000 교수님은 예전에 청계천특위할 때 청계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견문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계천 관련이다 보니까 제 소견에는 조 교수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깐 전부다 말씀 좀 듣겠습니다. 000님.

000 : 저는 사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돼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 문 부시장님께서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분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000님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000 교수님은 아까 000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계천에 대해서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청계천 복원할 때 시점부터 모두 관여를 하셔서 문제점 같은 것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추진력 있게 빠르게 계획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 중 어느 분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000 :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000님.

000 : 잘 모르겠습니다.

000 : 000님.

000 : 저도 송구스럽게 두 분을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여러 분들께서 정하시는 분에 따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셔도 좋은 지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00 : 000님.

000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셔도 좋은 청계천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000 : 000님.

000 : 위임하겠습니다.

000 : 누구한테 위임합니까? 저한테 위임하시는 겁니까?  
000님.

000 : 저도 마찬가지로 의견입니다. 누가 되든 따르겠습니다.

000 : 참 어렵군요. 000님.

000 : 글썄 두 분을 저도 잘 모르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택하라고 하시니까 참 난감한데 두 분이 한번 본인소신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지명하라는 것도 그러니까 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실지 들어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0 : 저는 관선위원장이고요. 민선위원장이 훨씬 더 대외적으로, 우리 정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출발하는 게 굉장히 조짐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 다 여쭙고요. 000님.

000 : 저는 000님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000님이나 000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000 : 저는 두 분을 여기서 처음 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두 분께서 잠깐 시간을 가지셔서 두 분께서 선택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 그러시면 두 분의 변을 듣는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정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분 중 어느 분이 되셔도 전혀, 두 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틀 속에서 공동위원장 두 명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 한 분, 저희 서울시에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되겠는데 민간에 공동위원회를 두 분으로 모실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성한 분 또 남성 한 분 그리고 계속해서 관여해 오셨던 분 한 분, 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겪어 오시면서 활동을 해 오신 분 한 분,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도 역할에 따라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000 : 그럼 세척부터 바뀌야 되는 것 아닙니까?

000 : 예. 세척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도로 두고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세척에 대한 보고가 있겠는데 세척보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저한테 위임해 주신 표가 제법 있으니까 제가 딱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게 귀도 많고 눈도 많고 사실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서는 저한테 위임해 주신 분 외에는 딱 반으로 갈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반으로 갈려있는 것을 첫출발부터 어느 위원장님 한편으로 몰아주면 나중에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럴 우려도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0님 진행하시죠.

000 : 다음은 청계천의 시설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의 복원은 청계천 복원배경에서부터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시설현황 보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전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본 운영세칙(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공익을

해함이 없다고 판단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00 : 지금 제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000 : 아까 두 분으로,

000 : 아니. ‘청계천시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고 그랬어요.

000 : 이것은 (안)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000 : 우선 위원장이 제가 관선, 민선 한 분해서 두 분으로 알고 왔는데 저기에서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둔다고 그래서 당장 첫 페이지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시면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측 위원장 1명하고 민간 외부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을 두 분으로 둔다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군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도 1번 항목에 맞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며’를 ‘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논의했던 사항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000 :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내용이 좀 있고요.

000 : 기왕에 운영 논의를 하실 거면 운영세칙이 운영방안에 관한 제안이니까 설명을 좀 하시고 위원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나누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0 : 그러면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읽어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우선 운영세칙(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실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2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둔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호선으로 하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선임한다.’ 또 ‘임기와 해촉 등은 내부방침에 따른다.’ 또 3조 위원의 위촉 등이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다.’

4조 안건의 상정 등이 있습니다. ‘회의안건은 자문 또는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자문 또는 보고안건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순 보고사항은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호에 회의소집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회의는 월 1회 셋째 주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로 한다.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회의진행 등입니다. 제6조.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되고 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 시킬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안전에 대하여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이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4항입니다. ‘간사는 안전심의 시 의사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전에 의사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7조 회의록 등입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 속기사를 두며 속기사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5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2항입니다. ‘속기사는 회의진행 및 속기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명할인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결과와 관리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 비공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2항입니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수당 등입니다.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운영세칙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0 : 지금 4조에 보시면 자문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 보고사항은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의 없으십니까?

000 : 만약에 이게 심의회라고 들어간다면 회의안건은 심의안건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문 또는 보고 및 심의안건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2항에 기관의 부서는 서울시 관련 기관이죠?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물론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2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안건을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보고사항은 3일 전까지 하라는,

000 : 통상적으로 운영세칙을 작성할 때 기본 포맷이 안건을,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와서 심의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숙지 못하시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을 줘야 안건을 설명 드리는데 송부를 해서 보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거든요.

000 : 혹시 위원발의 안건 같은 건 없습니까? 안건이 보고안건과 자문안건 외에 위원이 발의하는 안건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000 : 자문 및 보고안건 속에 자문이라고 하는 안건 속에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제기해 준 안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00 : 7조 회의록에서 7조2항에 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하고 8조1항에 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의 경우에는 서약서1이라든지 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서약서2라든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8조2항의 경우에는 너무 표현이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8조1항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면 1항에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이 된 경우에는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얘기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1항을 다 총괄적으로 해서 그냥 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000 :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님은 정보공개 원칙을 철학으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논의한 사항이 워낙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보니까 그것은 좀 정제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항목을 넣은 건데요. 그러시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문안을 조금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계셔서 뒤로 갔습니다마는 제5조 정기회의를 월1회 셋째 주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정이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정해 놓고 일정을 조정하시는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000 : 월1회로 정해 놓고 날짜는 여기서 잡으시죠. 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세척에다가 금요일 셋째 주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000 :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절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안 모이더라고요.

000 : 그러니까 정하는 건 좋은데 세척에다 그렇게,

000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됐는데 우리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지를 명

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만난다면 우리도 우리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 저분들도 엄청나게 바쁘신 분인데 매달 여기 오실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문을 위해서 매달 저희들한테 안건을 올려서 모든 걸 해야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일이 창출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없으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000 :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 줘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다음에 토론, 연구, 이런 행위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또 살펴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000 : 서울시 업무에 혹시라도 우리가 누가 될까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회가 하도 많은데,

000 : 저희들은 한 달에 두 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운영목적과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것은 운영세칙에 관한 것이고 시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시민위원회의 설치의 목적과 활동범위라든가 내용,

000 : 시민위원회에서 이것을 많이 다루어서 어쨌든 좋은 안은 나오는데 그 안이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벌여놓으면 그에 대한 뒷수습은 하셔야 되는데,

000 : 같이 하셔야죠.

000 :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 첫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역할이나 목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참여하신 위원들이 오히려 첫 번째 모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시고 방향들을 제안해 주시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목적이나 방향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여기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론을 좀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야 예산이든 행정비용이든 부수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더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00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서 말씀대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우리가 모아야 되는지. 어쨌든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은 운영세칙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별로 그렇게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만, 예컨대 정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세칙상에 나와 있는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위상은 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자문위원회인지 아닌지도 조금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개 청계천 시민위원회 같으면 우리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같은 제목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단순한 자문위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000 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이라든가 실제 일정하게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실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하기고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정말 짝센 단위였는데 지금 우리 청계천시민위원회, 이게 여느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타이틀로 가져간다면 훨씬 더 할 일도 분명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외적인 위상도 단순한 자문위원회 이상의 뭔가 내용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청계천시민위원회는 당초에는 참 뜻이 좋게 출발했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시민대표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자중지란이 나서 위원회가 사실상 스톱이 돼버렸는데 그때는 주요한 사업추진의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와 위원회 핵심 인사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결국은 아주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번 청계천시민위원회는 복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최소한 그런 전철은 밟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운영세칙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충분한 논의와 소통, 그다음에 합의를 하고 또 합의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 이런 것을 참여 위원들께서 처음부터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세칙 관련해서 여기서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활동 목적이라든가 위원회의 업무랄까 이런 것이 조금 더 세분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시에서 준 계획안에 의한다면 소위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그래서 2개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 관한 위상이랄까 혹은 구성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를 2개, 3개 두고 분과위원장을 아마 선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분과위원장이 선출되면 분과위원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단위로 해야 아주 긴급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무엇과 또 결부되느냐면 이 위원회가 도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워낙에 지금 안이 하나도 제시된 게 없어서 그냥 백지상태에서 이행하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 위원회가 해야 할 큰 일의 과제라든가 범주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 예. 또 다른 분 말씀 듣겠습니다. 000님.

000 : 저도 궁금한 게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청계천을 둘러싼 어떤 분야별 어떤 관점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했다는 브리핑을 좀 받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바닥부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어떤 부분에 자문을 할 수 있을지 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려면 먼저 큰 그림을 먼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을 여기서 논의하기보다는 그간의 사안들을 브리핑해 주시는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000 :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듣겠습니다. 000님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000 : 드릴 말은 많지 않고요. 000 교수님 말씀하신 데 많이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지금 청계천시민위원회가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은 지난달에 시장님 청계천 쪽 한번 답사하셨을 때 같이 걸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000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에 000시장님 계실 때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언뜻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중지란으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특히 저희 같은 역사 쪽에서는 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심지어 시장을 고발하는 그런 문제까지 비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들은 위원회가 선임되는 과정도 그렇고 위원회의 역할 이랄까요? 결정권한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결정단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문안건이냐 보고안건이냐를 여쭙봤던 것도 사실

자문은 안 받아도 되는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사항이라는 것도 정무적이거나 행정적 판단에 따라서 ‘시민위원회가 이렇게 제의를 했지만 이것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형태의 운영 때문에 지난 번 시민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냈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임명, 위촉된 시민위원들에게 큰 결정권을 부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먼저 도움을 주시는 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역할을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게 좀 분명해져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든가 아니면 축소해석 해버리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실 현재 만들어져있는 청계천이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기대,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가 균형 있게 복원되어 있는 청계천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공감대가 넓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수정할 것이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꼭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멀쩡하게 있는데 왜 손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수렴과정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이나 주문사항들에 대해서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로서도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000 : 000님 말씀해 주시죠.

000 :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된 배경이 제가 청계천 000 시장 시절에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청계천위원회에서 소외되었던, 저는 지금 사람 부분이 소외되었다고 그때 우리가 느껴



서 청계천을 개방하기 전에 직권조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5.8km를 여러 차례 걸었고요. 우리가 네 번 정도 걸으면서 각 공사구간마다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부 체크업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수용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전문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때에 이러저러한 동의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위원회를 그만두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개방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청계천에 대한 평가가 그냥 대중적 평가하고 달리 그 사업의 추진에 참여했었던 서울이나 아니면 바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000 시장 시절에 조금 원래의 모습을 되돌려야겠다고 하는 부분을 추려서 그걸 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서울시 측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참여했던 전문가 선생님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새롭게 참여하신 분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모아서 그걸 좀 정리해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희망하지만 조금 더 뒤로 미뤄들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나가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새로 구성되어진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주로 키워드가 생태와 문화여서, 물론 생태와 문화에 모두 사람이 들어있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람, 인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람 부분이 좀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 생태, 문화 내지 역사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00 : 고맙습니다.

000 :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000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류가 5종에서 25종으로 늘었다고 하였고, 제가 그때 2년 전 여기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었고 ...사건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저한테 자문이 왔을 때는 그때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투망 치면서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잘못된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구나.' 해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항상 청계천이 어류에 대해서 문제가 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발전적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 나름대로 전주에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시민위원회'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자문하는 정도로 한다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대학원 수업도 빼서 왔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대체 뭔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와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 문제되는 것들은 약간의 보완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될 것인라, 라는 것들이 심의위원회 또는 그게 나중에 보고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00 : 예. 또 말씀 듣겠습니다.

000 : 지금 우리 새 위원회가 임기가 2년입니까? 어쨌든 1년, 2년을 할 터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디테일한 업무나 과제라기보다는 총론적으로, 사실상 시민위원회 2기라고 본다면 2기가 청계천 관련해서 어떤 형식의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성질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 청계천 문제 같으면 어쨌든 잘한다고

벌여놓아서 늘 흥분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원된 청계천에 대한 수용이랄까 지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다고 하면 ‘뜯고 새로 하느냐.’ 그런 시민들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 사업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우리 활동 자체를 왜곡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시장이 들어섰다고 해서 무조건 뜯고 새로 한다는 그런 인상보다는 시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청계천복원 초기에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검토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경향신문에 우리 부시장님 인터뷰하셨던 코멘트를 보면 ‘진짜 명물로, 영원한 명물로 만들자.’ 어쨌든 그런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미 그게 정치결정에 의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짚은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청계천복원의 여지는 남겨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하는 이번 복원은 재복원이라기보다는 제2단계 복원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 청계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계천을 어떻게 하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중에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 복원 이후에 여러 지방에서 유사한 일들을 해 왔는데 청계천을 다시 복원해서 자리매김하게 되면 유사사례들이 아마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기 동안 해야 할 일은 비단 서울에 있는 청계천만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모범이 돼서 이를 테면 가까이 있는 한강으로부터 멀리 광주에 있는 광주천까지 포

함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동시에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이것은 여러분이 제안을 하시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만 일단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복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너무 과도한 토목적 관점과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역사복원, 생태복원 이런 큰 두 영역과 더불어 앞에서 000께서 말씀하셨던 사람과 관련된 일입니다만 제대로 된 시민참여 속에서 지속가능한 관리 거버넌스 이런 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가 보건대 크게 세 덩어리의 과제가 있지 않나. 우선 모두에 제안을 드립니다.

000 :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000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이 이런 종류의 위원회 논의에서, 첫 위촉하고 논의에서 ‘준비 안 된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고요. 다만 지금 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뭔가를 만들 때 의례히 과거에 했던 것처럼 관에서 모든 걸 다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가벼운 코멘트를 한번씩 해 주시고 돌아가는 그런 위원회를 지향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 청계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시가 주도해서 한번 사업을 한 것이고, 그것을 보완 발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과제를 도출해내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초기 논의과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돼서 코멘트만 하셔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초기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분야는 아까 000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크게 기본관점은 1단계 청계천복원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는 것을 전제하는 바탕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부족하고 2단계의 과제로서 인정했던 부분들, 생태적 복원이나 역사복원이나 시민이용의 여건을 개선하거나 청계천 주변을 활성화하는 문제, 최근에 나온 홍수에 대한 대비나 수질개선 이런 부분들을 2단계 차원에서 보완 발전시키는 과제들을 골라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야를 내용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기획하고 또 조사, 연구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했던 것이 오늘 위원회 구성이고, 이 위원회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고요.

일의 순서로 보면 아마 진단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비판과 연구들이 기왕에 있었을 테니까 그런 기존의 조사나 연구를 리뷰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연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을 분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초기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시에서 아마 안을 내긴 하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으로는 위원들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과제들을 제안해 주시고 도출해주는 작업들을 초기에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 : 식사를 드시면서 말씀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중요한 의제들을 살펴보면 향후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목표, 그리고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정리하는 게 또 있겠습니다. 자문위원회냐의 의결기구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

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시민위원회가 자문이면서 의결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의결기구다, 자문위원회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시민위원회 그 자체적으로 상징하는 역할과 권한과 의의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차피 모셔서 ‘우리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시작하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차원의 모임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얘기하신 대로 뭘 어떻게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만큼은 시간을 갖고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 주도가 아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거에 이야기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제를 선정하시고 함께 의논하셔서 그 의제를 향해서 분과별로 연구를 하시고 추진하고 만약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분야에, 그 분과에서 또 다른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함께 토론하고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주변지역의 문제, 보행권, 인권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마침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레포트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주 3월 내로 송부를 해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서 수정해 주시거나 보완해 주시거나 또는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계속 보완해나가는 과정으로 하고, 한 달 동안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000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뜻 앞에 운영규칙을 봤더니 임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조 교수님도 임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이 위원회가 계속 장기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

상 2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차라리 임기를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이 시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 님 얘기하셨듯이 첫 번째가 진단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니터링 이런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건상 2년 정도밖에 안된다면 최소한 계획단계까지는 계획이 완전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지 그런 책임 있는 용어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00 : 그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기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세칙이니 자문위원회니 구성요건 속에 꼭 임기라는 게 있어서 명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 위원회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가 원하는, 또는 청계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한 위원회 임기에 꼭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또 진행과정에서도 위원회가 복원 쪽으로 해서 그 분야가 또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격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00 : 저희들은 지금 이 시민위원회가 청계천 하도에만 국한된 위원회로서 활동할 계획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계천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계천 유역이 사실상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유역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청계천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역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유역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인왕산이라든지 여러 지류들도 같이 한꺼번에 다뤄서 유역차원에서 큰 틀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청계천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000 :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니까 여하튼 서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게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이번만큼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다음 모임 때 오늘 결정하지 못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 위원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모임 때 난상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개별적으로 아니면 그동안 고민들을 정리하셔서 그 내용 가지고 다음에 한 번 하고 다음에도 결정이 안 나면 또 그 다음에 해서 아예 처음부터 위상과 역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작업들을 첫 번째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00 : 고맙습니다.

000 : 식사하시는 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지난번 청계천 처음 복원할 때는 일단 청계천 복원에 관한 공약이 나오고 그것을 구체화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고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문기구가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분야에서는, 예컨대 역사분야나 환경, 생태 쪽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두르는 측면도 있고 000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토목관점이 과도하게 개입돼서 다른 쪽이 무시된 측면도 있고 해서 시민위원회의 의견들이 많은 경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결국 ‘구색 맞추기 구실만 하고 말았다.’ 이런 자기반성도 있었고 ‘괜히 여기다 이름만 올리고 말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좀 분명하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자문이 아니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많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시장님이 천천히 하시겠다 하더라도 언제 얘기가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계천에 대해서 현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슈를 추출하는 과정이겠죠. 이걸 어렵지 않게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나 시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도 지난번처럼 시정개발연구원에 추진했던 청계천 종합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자문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떤 차원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초논의를 먼저 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이슈 추출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시민위원회를 애써서 구성하셨습니까마는 이 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특히 제가 다른 분들 다 잘 모릅시다마는 지난번 청계천 복원할 때 토건적 관점이 압도적이었다면 이번 시민위원회는 오히려 토건적 관점이 없어요. 그게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 소재를 객관적으로 잡아보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가능한 영역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 : 고맙습니다.

000님 한 말씀, 밥값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000 :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물론 시장님께서, 아까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중간중간에 내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가 1년인지 2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청계천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 청계천시민위원회가 할 일은 지금 복원된 현 상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 아까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태적인 것, 역사적인 것, 홍수, 수질, 시민의 이용 측면 그런 문제점을 일단은 현재상태에서 문제점을 다 도출해 내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 좀 더 자연형, 친화적인 측면에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사실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리나 역사적인 문화적인 복원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는 있어도 현재 청계천이, 아까 통수단면이라든지 아니면 하상상태라든지 그런 초기판의 그런 것은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단은 청계천의 홍수적인 측면이나 수질측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든지 대심도를 설치하든지 간에 그런 검토가 충분히, 제가 사실은 환경측면에 수질측면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하나를 결정해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그런 게 이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과연 이 시민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확실하게 보고를 들었으면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측면에서 청계천의 현 상태를 먼저, 문제점이 지금 다 제시되

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과연 어느 선까지 복원하실 것인지 일단 그 목표는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일단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오늘은 일단 발족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의 충분한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1차 회의로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000 : 유일하게 우리 편이 한 분 계시네요.

000 : 저도 부시장님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김 선생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점잖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거의 상견례 때 이 정도 내용을 확보한 회의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점잖으셔서 저도 오히려 쭈뼛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거의 서울시가 상당히 고도롭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 사실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덜컥 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지 않고 또 시민위원회를 그렇게 가지 않겠다, 이런 복안이 있으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시민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아니 하셨던 분들이 다들 문제점들을 갖고 계시고요. 저도 아주 작은 부분의 말씀드릴 부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모아주신다면 거의 다 도출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미처 올라오지 못했다면 다음 회의 전에 더 올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만나서 덧붙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회의진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표를 한 표 드립니다.

000 : 한 분 더 느셨습니다.

(웃음소리)

여기 올라오는데 기자들의 많은 전화가 있었어요. ‘오늘 논의가 뭐냐. 뭘 논의할 거냐.’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 처음 모셔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성급한 취재에 대해서 제 직원들한테도 ‘조심해라.’ 사실은 이게 워낙 관심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 잘 안 하면 여러 가지 억측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한테 시간을, 오늘 말씀의 사항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메일로 보내드릴 텐데 그 메일도 역시 상당히 취약합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준비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00님.

000 :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다음번에, 원래 오늘 얘기해 주신 취지대로 오늘 위원이 위촉 됐으니까 다음에 시에서 그냥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위원장들이랑 같이 협의돼서 안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논의되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과정이 위원회가 위촉됐으니까 적어도 다 위원들하고 소통하기 힘들시더라도 위원장분들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지금 당장의 자료들도 있지만 청계천이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저도 문화연대사무처장인데, 지금 직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연대사무처장인데 민간이나 서울시 안에도 자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의 전까지는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중요한 자료들은 좀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내주시면 충분히 논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0 : 부시장님 저 밥값 좀 하고 가겠습니다.

000 : 이미 밥값 하셨습니다.

000 : 저도 청계천은 처음 고가도로 있을 때부터, 사실 슬레브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하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자만 있으면 보수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없앤다고 하시기에 청계천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밑에 들어가서 4년간 시민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토목이 어찌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지금 한국구조진단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있어서도 청계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과 시민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 절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봐서 ‘이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많이 따를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서 모든 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찾아왔다고 보여는 지는데 그 상황은 그 상황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가 있었고 지금 우리 박 시장님께서 또 더 좋은 청계천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서는 우리 위원회가 자문도 되지만 심의 또는 의결기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기관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보고 단지 더 좋은 청계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한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가 만약에 의결기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막 나선다면 하면 서울시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하시는 것에 있어서 시

민의 일원으로 이러이러한 안이 자기 전공이, 다 여기 보면 문화재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로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청계천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 문화, 역사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도 반영은 됐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복원시켜서 우리가 더 좋은 청계천을 만들어서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주 좋은 청계천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 고맙습니다. 자문이나 의결이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에는 적어도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권능이, 위상이 그 정도 위상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사실은 논의해 주신 사항이 저희로 보서는 굉장히 무겁게, 행정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걸 의회의 의결처럼 생각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말씀에 좀 오해가 있었군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면 그것은 의결에 가까운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청계천은 옛날처럼 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회 논의과정도 그런 각오나 그런 사전기반 없이 논의하시게 되면 지난번처럼 깨지거나 와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먼저 방향을 결정하고 그 의제를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의제를 받아서 그걸 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위원회에서 그걸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000 시장님의 정책결정의 과정,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전혀 결정을 해 놓고 뭘 추진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혹 소수의 이견을 가진,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이라

고 하는 것을 그전처럼 소수의견으로 치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4개월 돼서 벌써 5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아직도 추진을, 정작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아직도 논의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 서울시의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전까지 저희가 일단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그러나 청계천 미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담기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꼬박꼬박 Q&A 형식을 빌어서라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보셔서 의견을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새로운 의제, 다음 회의의 새로운 안건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바탕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모아서 두 분 위원장님 모셔서 따로 의제를 정하고, 000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제선택을 하겠습니다.

000 : 부시장님 몇 번 지목하셨는데 그때만 말씀드려도 말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에 부담 드린 내용은 취소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듣고 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의결이니 자문이니를 떠나서 현재의 청계천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랄까요? 미래 청계천에 대한 시민의 꿈이랄까요? 이걸 모아보는 정도의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역사전문가이기 때문에 ‘역사복원’으로는 아주 엉망이다. 빵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역사적

으로 이렇게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했다가 홍수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했다가 물만 더러워진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각 분야에서 그렇게 충돌을 할 겁니다. 역사, 문화, 생태, 인권, 수질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지난번 복원할 때 잡았던 균형점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느끼기에 그 균형점이 한 군데로 치우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균형점을 새로 잡아서 좀 더 나은 청계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증해 보고, 이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그림 그리는 것은 그 뒷일로 넘겨보자.’ 아마 이런 취지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만 다음 번 회의 때는 각 위원분들께서 황당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아마 말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현재 청계천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나아져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짧은 발제를 하시면 그게 결국 어디서 균형점을 새로 잡아야 될지 그런 논점들을 잡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다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선정하셔서 다음번에 역사 또는 생태, 인권 중심으로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는 그런 회의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각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다른 쪽에서 왜 문제가 안 되거나 또 다른 문제로 파생되는 것인지를 진단하는, 그런 식으로 한동안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0 : 민선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제 관선 위원장은 물러갈까합니다. 두 분께서 번갈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000 : 식사 중이니까 제가 잠시 바통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세팅은 중할 터인데 그걸 다음 회의 때 그냥 발제를 다 맡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오늘 그냥 몇 분을 아주 지목을 해서 대표선수를 두 분 세 분 지목을 해서 집중적으로 발제가 되고 토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음 회의 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는다면 워크숍을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오후에 너덧 시간 짝세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단 의제세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궁금한 것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뭔가 좀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뭘 하실지에 대해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그림에 대한 것이 전혀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안되는 것을 받아서 모아서 세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는 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의 여러 가지 관점이라든가 시 내부에 여러 가지 청계천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기대랄까 혹은 청계천 제2단계 복원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좋다고 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실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00 : 이제 완전히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해 드리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발제를 여기서 딱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 두 분과 조만간 상의해서 또 발제하실 분들에게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실 테니까 사전에 좀, 우선 첫 000님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들어보시

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000 : 다음 주에 저보고 발제를 하라고 벌써 지목을 하신 겁니까?

000 : 예.

000 :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일단 제가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00 : 거기에 폭탄발언 있습니까?

000 : 폭탄은 없습니다.

000 : 발제도 다 좋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분야에, 자기 분야에 전문가, 저는 디자인분야입니다마는 자기 분야에는 굉장히 깊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할 때는 소위 말하는 T자형전문가라는 개념의 시각이나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두고 자기 전문분야 입장에서는 이렇다, 라는 것은 자칫 주장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운데 띄워져있는 청계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는 데 그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전체적인 것을 먼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의 방법론에 있어서 각자 자기의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딘가 중간지점에서 문제점이랄지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는 시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긴데요. 그런 자리를 가진 이후에 발제에 대한 앵글을 잡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요청하신 내용들이 바로 지금까지 현황이 뭐냐, 현황이라는 것은 있는 그 현황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해서 마치 거기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까봐 서울시에서는 잠시 우려를 하시는 것도 같은데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실 겁니다. 다들 전문

적인 입장에서 그것은 참고로 해서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과정이 각자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현황적인 여러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서울시 입장에서 계획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000 :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000장님, 뭔가 정리하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000 : 갑자기 사회권이 조 교수님에서 저한테 와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 교수님이 마무리하는 게 마땅한데 제가, 그냥 여전히 되풀이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요. 청계천의 복원 이후에 대중적 평가가 있고요. 그것은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서울시도 이미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평가도 있을 거고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중에 누가 발표하는 것 이외에 그런 아주 기본적 평가를 좀 실무적으로 모아주시면 저희들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전 위원님께서 발제를 맡으시려면 본인 분야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청취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리이러하다는 개괄적인 발제를 해 주셔야지 오늘 논의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 우리가 듣고 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얘기를 모아서 의제로 안전화 한다든가 내지는 논의테이블에 쉽게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작업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진 선상에서 또다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제2의 오늘과 같은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위촉식은 엄청 잘된 것 같고 밥도 되게 맛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회의에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 밥값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는 서울시에게 해결해야 될 것들을 던지

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의 실력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오늘 쏟아진 의견들을 어느 정도 잘 종합해 주실지.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정도에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00 :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발제숙제는 그렇게는 제가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듯이.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민위원회는 어디 자문을 한다기보다도 현재 서울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청계천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미흡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대목이 무엇이냐를 수렴하고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전망이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꿈을 늘어놓자, 역사학자가 볼 때는 이 청계천에 어느 정도의 역사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늘어봐 보고 나서 그게 예컨대 환경적으로 또는 수질관리문제나 교통문제나 인권문제나 이런 데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가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그것이 갖는 약점들을 먼저 짚어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점을 잡는 방식으로 시민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서울시가 받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어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000 : 아닙니다. 전 위원님 정말 넘어가버리려고 하는 저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비어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마무리하자는 데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비어있는 부분, 역사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완벽하게 발제를 해 주실 것 같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충적 발제가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은 혹시 위원장단한테 위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아주 효과적인

으로 한 시간 빨리 회의를 마치는 거거든요. 괜찮겠지요?

000 : 제안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청계천사업에 대해서 공과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위원회가 발족된 이후는 지금까지 청계천을 바라봤던 시각을, 관점을 바꾸어보자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서울시와 시민과의 어떤 동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청계천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만들어놓았던 불후의 명작이라는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한 관점으로 일관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트집잡히는 건 허용 안 되는, 항상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반박이 됐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문제없다는 걸로 계속 나가는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점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 모여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들은 아까도 소위나 분과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분과위별 안건들을 마련해서,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서 의제들을 거기서 의논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다 한 분씩 발표하면 의견 듣는 데만 1년 다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000 : 감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으나 박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의 논의를 만약에 위임받아서 위원장단들이 논의를 하면 아마 그렇게 흘러가

리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발제 이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소위의 역할에 대한 그림이 다음 회의에서는 조금 더 명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과 전문적 역할을 알았다고 하면 지금 제안해 주신 소위 구성과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빠른 것 같다는 말이죠, 오늘 처음 만나서는.

그래서 한 분 발제자 선생님은 정했고 이후에는 저는 지금 000장을 믿고 있거든요. 조 위원장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거고 또 논의를 해 보면 어떤 분들이 발제를 해 주면 지금 갖고 계시는 안에 다가갈 수 있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서둘러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게 속 기록에 된다고 해서 정말 부담스럽네요. 아주 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냥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1차 회의는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어떨지요?

(“예.”하는 위원 다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선언을 제가 해도 되나요?

000 : 예. 두 분이 합창으로 하시든지요.

000 : 여러분 오늘 위촉식 겸 상견례 겸 아주 넓은 안을 제시하는 1차 회의 아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게 정말 영광입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너무나,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청계천이기 때문에.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일 동 박수)

000 : 청계천 답사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천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4분 폐회』